실체 논란에 수사 의뢰 공표까지…신뢰관계 회복 요원

광주시 메드라인 투자유치 무산 위기 자초 왜?

지방선거 국면 논란 휩쓸려
市, 미본사 확인 불신 불러
일자리 350개 창출 물거품

광주시가 메드라인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체 논란 속에 전례없는 '정보 유출 수사 의뢰 방침 공표', '한국 파트너에 대한 불신과 미국 본사에 대한 직접 확인' 등으로 투자 유치 무산 위기를 사실상 자초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행정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수사 의뢰 공표'가 실체 논란 부추겨=광주시는 지난 2월 5일 '글로벌 의료기업, 청년일자리 350개 만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10월 초 매드라인 한국 파트너의 투자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2월 14일 LH 광주전남본부와 투자의향서 작성, 지난 2월 3일 '메드라인 비전 선포식' 개최 등을 거쳐 투자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시는 "빛그린산업단지에 의료용품 멸균 및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4월 초 착공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일자리 350개를 새로 만들 예정이며, 이곳에서 공정을 마친 의료용품들은 국내외 병원 등에 공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에서는 "메드라인은 지난 2004년 일본에 진출한 바 있으며,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장현 광주시장이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서면서 메드라인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지난 3월 21일 시 감사위원회가 "투자를 약속한 의료기업 메드라인 관련 문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됐다"며 수사 의뢰 방침을 공식화하자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파트너가 이를 항의했고, 시는 본사에 직접 투자 여부를 확인하면서 상호 신뢰 관계가 금이 간 것이다.

◇메드라인 한국 파트너 측 "기업 유치 ABC도 모른다"=메드라인 한국 파트너 측은 시의 이 같은 업무 처리와 관련 "외국 기업 유치의 기본도 모르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자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기업의 투자 시기, 방식, 규모 등이 비밀에 붙여질 수밖에 없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메드라인 한국 파트너 측 한 관계자는 "실체 논란이 일면서 직접 투자 여부를 문의하는 등 한국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시의 업무처리 방식에 본사 측이 당혹스러워했다"며 "지금까지 본사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를 받고, 정보를 얻고 있는데 파트너 인지 여부까지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9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메드라인은 또 해외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아시아·유럽 등의 지사나 해당 국가의 파트너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이 과정에서 메드라인의 상호, 생산시설 설치,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시가 메드라인이라는 기업 특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에 나선 셈이다.

◇메드라인 투자 유치 무산 위기, 결국 지역민 피해=메드라인 한국 파트너 측은 최근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선 6기에서의 투자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6·13 지방선거 후 민선 7기에서 이를 다시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미국 시카고 본사를 찾아 만남을 요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투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는 입장이다.

한국 파트너 측 관계자는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결국 지역과 지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라며 "광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이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북미회담 중재·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

비핵화 해법 간극 조정 총력
이행추진위원회 발족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원활한 중재 역할과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 정상이 합의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하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입장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정상 간의 입장이 확인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단계를 넘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최대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구상 중인 비핵화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포기 일괄타결의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방점을 둔 북한 사이의 이견이 해소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언제든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를 가동, 다시 한 번 북미 간 입장을 중재하는 기회를 만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 가동시키며 남북정상회담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준비위에 이어 이행추진위 위원장을 맡는 것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처로 해석된다.

이행추진위는 남북미 간 비핵화 협의를 관장하는 동시에 별도의 사전 작업이 필요 없는 대북교류사업 등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대북 제재 해제 등이 이뤄지면 추진될 남북 간 과제도 많은 만큼 사전의 대비는 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행추진위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틀을 만들고 구체적 이행은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각 부처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青 "문대통령 취임 1주년 별도 행사 없이 업무 집중"

10일, 정책·성과 자료집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는 오는 10일 별도의 기념행사를 갖지 않고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등 국정 현안을 챙기며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현안과 씨름할 것이며, 참모들도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1년간 활동을 정리한 자료와 정부 정책 성과 자료를 내놨으며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청와대 2층 로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을 개최한다.

10일 당일에는 문 대통령의 주요 행보와 메시지·정책 성과를 화보 형태로 꾸민 자료집 '광장에서 골목으로, 국민과 함께 한 길'을 공개한다. 또 청와대 직원들의 출근 모습을 담은 미니 다큐 '청와대의 아침'과 일부 통제됐던 인왕산 길을 담은 영상 '열린 청와대, 인왕산 가는 길'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임동욱기자 tuim@

문대통령 지지율 78.3%…지난주보다 8.3%p 올라

리얼미터, 민주 55 한국 1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0%대 후반까지 급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3%로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8.3%p 올랐다.

이 같은 국정지지율은 취임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효과와 이전 정부와는 대비되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작년 5월 4주차(84.1%)와 6월 1주차(7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리얼미터는 "남북정상회담이 국민 대부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83.3%, 21.0%p↑), 대구·경북(68.3%, 16.7%p↑)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9%(2.7%p↑)로 반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작년 5월 4주차의 56.7%였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2%p 내린 17.9%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2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 6주 동안 유지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바른미래당은 6.0%(0.1%p↓)로 횡보했고, 정의당은 5.2%로 변화가 없었다. 민주평화당은 0.5%p 오른 3.2%로 다시 3%대로 상승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공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마츠모토(나가노), 방콕, 다낭, 제주도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2018년 5월 13일(일)~ 정기편 운항 주 3회 출발 / 매주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큐슈 품격 특가 단, 4회[5/8(화), 5/15(화), 5/22(화), 5/27(일)]
2박3일 기타큐슈(일 출발) 399,000원~
3박4일 기타큐슈 (특급 2박 / 고급 온천료칸 1박)
◆ 한정특가 499,000원 ~
◆ 야마구치품격 699,000원~

어버이날 특집 최고급 국내 효도 온천여행
[무안 ↔ 양양 직항] 강원도 속초, 삼척, 동해
2018년 5월 5일(토) ~ 5월 7일(월)[항공 2박3일]
1인당 458,000원~

제주도 2박3일(주중) 299,000원~, 2박3일(주말) 379,000원~

지중해 크루즈 10일
(모스크바,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품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품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설벽 기간 : 4/15~6/22)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 연봉 무로토까지의 대자연을 케이블카,고원버스, 로프웨이 등으로 이동하는 왕복 산악 루트를 탈것으로 이동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5시간 산책 하는 코스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2018년 4월 30일(월)~ 매주 월, 목요일(3박4일) / 수, 금요일(2박3일)
◆ 오사카, 나라, 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 6/15(금), 6/20(수)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 6/11(월), 6/28(목)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쭈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3박4일), 금요일(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사(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5월 가정의 달 3박4일 한정 특가 499,000원~
[골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2018년 5월 2일(수)~ 매주 수, 목요일(3박5일) / 토, 일요일(4박6일)
◆ 준특급호텔 649,000원~ ◆ 특급호텔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